

‘한글날’ 지정 결의안 가주 하원 통과 상원 무난 통과 전망

가주 의회가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 기념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하원은 지난달 30일 한글날 지정 결의안(ACR 109)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79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67명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상원은 늦어도 회기 종료일인 13일 이전에 전체 투표에 회부해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 ACR 109는 지난 6월 27일 가주 하원 퀴크-실바 의원(65지구, 민주당, 사진)과 최석호(68지구, 공화) 의원, 미겔 산티아고(53지구,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ACR 109는 상원 전체 표결에서 가결되면 주지사 서명 없이 즉시 발효된다. 상·하원 합동결의안이기 때문이다. 결의안이 주상원을 통과하면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박동우 퀴크-실바 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2천 5백 명 이상이 편지와 온라인을 통해 주의회에 전달된 한글날 지정 결의안에 대한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가주에서 특정 언어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는 것은 ‘한글날’이 처음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7천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수는 약 7,700만 명으로 사용자 수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한글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됐으며,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과를 개설한 대학은 약 47개국 642개 학교에 달한다.

60대 한인 운전자, 술 취한 여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 당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한인 남성 황 모 씨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지난달 24일 발생했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황 씨는 이날 저녁 7시가 넘는 시각, 샌프란시스코 하이트 스트리트에서 손님 한 명을 태웠다.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승객은 운행 도중 갑자기 구도를 했다. 창밖으로 구도를 하긴 했지만 차량은 더러워졌고, 책임 소재를 두고 리프트와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황 씨는 증거 사진을 담기 시작했다. 그때 여성 승객이 쫓아와 운전석에 타려는 황 씨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황 씨의 자녀에 따르면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황 씨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 문을 거세게 닫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객은 주먹으로 황 씨의 뒤통수와 얼굴, 어깨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과 여성 승객을 피해 인도 쪽으로 몸을 피하는 황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황 씨의 자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승객이 주먹

질을 멈추자 영어가 서툰 아버지는 구경꾼들에게 다가 도움을 청했다.” 라고 밝혔다.

이후 황 씨는 경찰이 도착해 여성 승객에게 수갑을 채우자 상황이 정리되는 줄 알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황 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조사 없이 여성을 풀어주었고, 황 씨가 돌아왔을 때 여성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황 씨 측은 경찰이 여성의 신원에 대해 ‘패트리샤’라는 이름 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황 씨가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여성을 구금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황 씨의 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내 가족, 내 부모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아버지는 여성 승객에게 선불리 방어했다가 고발당할 것을 우려해 그저 맞고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황 씨의 가족은 부상을 입은 황 씨의 사진과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여성 승객의 사진 등을 공유하고 이 승객의 신원 파악을 위해 직접 노력하고 있다.

제 46회 LA한인축제 열린다

9월 26일-29일 서울국제공원 일원

제46회 LA한인축제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인 타운 서울국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웃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6회 LA한인 축제에는 방글라데시, 인디오 원주민 오하카(Oaxaca),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의 커뮤니티도 참여해 인종과 문화의 화합을 도모한다.

올해 축제에는 경상북도(21개), 경상남도(19개), 전라남도(15개), 부산(10개), 여수(7개) 등이 참여하는 119개 부스가 설치돼 한국에서 들어온 농수산특산물이 판매된다. 이밖에도 음식 부스, 화장품과 액세서리 등 일반 부스 122개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각종 공연, 경품 이벤트, 시니어 패션쇼, 하이틴 코

리아 선발대회, 코리아 퍼레이드 등 화려한 행사도 열린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주차 문제 해결에도 힘을 기울였다. 축제재단 측은 로버트 케네디스쿨과 호바트초등학교 주차장을 대여해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에는 교육기자재를 기부하는 한인축제가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리아 퍼레이드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LA 한인타운의 중심을 관통하는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 카탈리나~웨스턴 구간에서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다.

SC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 1pm~5pm 토 9am~2pm

LA 213)352-1090

520 S. Virgil Ave Suit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714)735-8588

5451 La Palma Ave. Suite 26
La Palma, CA 90623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